

자유학기제에 희망을 걸다

김*영(정읍**중학교, 회원)

2015년은 내 인생 최악의 교직 생활이었다. 친구 등에 침을 뱉은 학생을 지도하려다가 난생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거친 욕을 들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거침없는 욕지거리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학생들을 만났다면 누구도 멀쩡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너무 떠들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과 담배연기가 자욱한 교실복도, 그리고 계속된 친구 간의 학교폭력, 교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학부모를 보면서 함께 근무하던 선생님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졌다. 나도 역시 담임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대다수 교사가 기피하는 자유학기 업무를 처음 맡게 된 것은 2016년이였다.

자유학기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맨 처음 시작하는 자유학기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유학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연수를 받고 안내 책자를 뒤적거리며 자유학기가 이전의 교육부가 추진하던 연구학교와는 달리 꽤 쓸 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과 함께 긴 시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돈다. 교사가 된 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것 같았다. 자유학기는 교사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요리책을 보고 레시피에 따라 요리하던 방식이 아니라 교사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의 또 하나의 자율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바닥까지 무너진 교실과 교사의 자존감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학기를 통해 보이기 시작했다.

폭넓게 바라보고 생각을 키우는 주제선택수업

학생의 흥미·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주제선택수업은 학급수와 교사의 수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모두 존중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6학급인 우리 학교는 1학기는 2가지 주제수업을 선택 없이 운영하였고, 2학기에는 4개 주제로 하나의 블록(16차시 주제 × 4개의 주제)을 만들고, 학생들이 6개의 블록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주제선택수업은 교육과정 재편성을 통해 교과내용을 실생활과의 연계하는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구성했다. 하나의 주제를 폭넓고 깊게 탐구해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둠수업을 하기 어려워 협력과 토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연극으로 만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내가 시장이 된다면’ ‘수필 속의 음식 만들기’ 등 각 교과마다 좋은 주제의 수업이 많았으나 일단 그 중에서 내가 맡은 과학수업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구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의 수업은 중학교 1학년의 학습능력을 고려해 16차시의 학

습지를 사용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교과 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교과서 속의 지식만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수업과 학교수업을 오갔던 1분기에는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차시	차시별 주제	활동내용(보고서)
1~2	종의 변이	국화꽃의 변이를 이용한 예쁜 화분 만들기
3~4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
5~6	위협받는 생물의 다양성	위협받는 생물을 조사하고 멸종생물 카드 만들기
7~8	모든 생물체들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	먹이사슬, 먹이그물 그려보기
9~10	에너지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이동할 때 어떻게 변환되는가?	재해에 의한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에서 에너지 이동의 변화와 생물다양성과의 관계
11~12	다른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까?	m&m초콜릿을 이용한 생태계 실험
13~14	먹이그물은 어떻게 변할까?	생태계 실험을 통한 그래프 그리기. 한 생물의 개체수 감소와 먹이사슬의 변화 예측
15~16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 그림 그리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홍보 그림 그리기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국화를 심으며 생물의 변이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국화 화분을 만드는 활동



m&m초콜릿을 이용한 생태계 변화 실험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홍보 그림 그리기 작품



멸종위기 생물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홍보 그림 그리기 작품

나를 알고 나의 꿈을 알아가는 진로활동

중학교 1학년에게 십 년 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미래의 자신의 직업을 정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중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적성, 흥미에 대해 알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8차시의 MBTI수업과 진로가치관 검사,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는 주제의 직업 알아보기, 그리고 자신의 진로의 탐색과정을 소개하는 나의 꿈 발표대회로 진로활동을 마무리하는 34차시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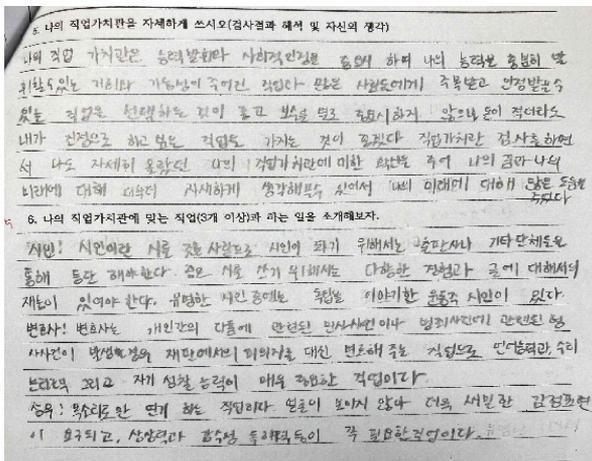
진로란? → 진로 가치관 → 나는 누구인가 → 다양한 직업체험 → 나의 꿈 탐색하기
→ 세상의 모든 직업

진로활동 수업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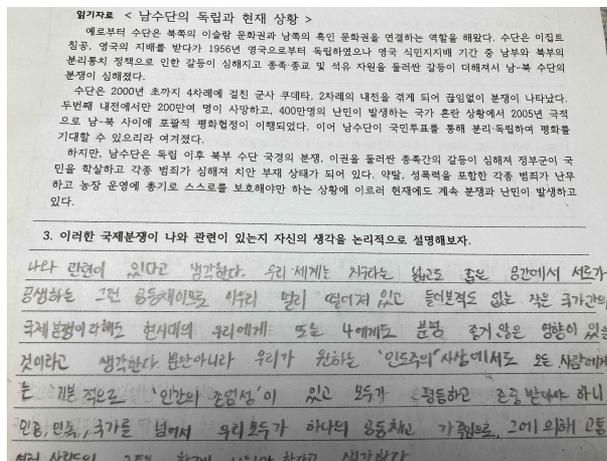
일회적인 체험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의 계열화된 진로활동수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자유학기 활동이 끝날 즈음에 생활기록부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쓰라고 했을 때 28명의 학생이 26개의 각기 다른 직업을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 전년도에 선생님, 공무원, 의사 등 학생 전체가 서너 개의 동일한 직업을 써서 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아래 표는 고사기간 중에 실시한 프로젝트 수업인 진로 가치관 수업 내용이다. 아직은 어설픈 수업이지만 1학년 담임선생님들과 여러 차례 토의 끝에 계획한 수업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보고서의 작성 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여 내용이 더 풍부하고 깊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수업 활동	'세계시민으로서의 진로가치관' 보고서 내용
(1~3차시) 다큐멘터리 시청 '울지마 톤즈' (4~5차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강의 및 활동 (6차시) 진로 가치관이란? 강의 (7차시) 커리어넷 진로가치관 검사 및 나의 진로 가치관에 알맞은 직업 조사 (8~9차시) 보고서 작성-휴대전화 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큐멘터리 내용 확인 2. 세계시민이란 무슨 뜻인가? 3. 국제분쟁이 나와 관련이 있는가? 4. 인도주의란? 5. 나눔의 종류와 나눔의 경험에 대한 느낀 점 6.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인도주의 7. 직업가치관이란? 8. 커리어 넷에서 직업가치관 검사하기 9. 나의 직업가치관은? 10. 나의 직업가치관에 알맞은 직업 소개하기



'세계시민으로서의 진로가치관' 보고서 일부1



'세계시민으로서의 진로가치관' 보고서



농촌체험활동 고구마 캐기



직업체험 가상현실 전문가



8차시로 진행된 나를 알아가는 mbti 검사와 해석 및 친구 이해하기 활동



농촌체험 마을소풍 떡 만들기



진로체험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이야기

즐겁고 건강하게! 창의력 쑥쑥 예술·체육활동

‘학교는 즐거워야 한다!’ 평소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가 늘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런데 2016년 2학기 자유학기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로부터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라는 말을 들었다. 학생참여수업과 교과서의 내용을 벗어나 실생활과 연결되는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다. 특히 기술가정 주제선택수업인 ‘수필 속의 요리’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15명 내외로 반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예술·체육수업 또한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2016~2018년 학년말 1학년 축제인 자유학기 발표회에서 거의 1학년 학생들이 무대에서 발표를 했고 학생과 선생님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진정한 축제라며 힘들지만 보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 또한 무대 위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찬 박수와 함께 큰 함성으로 격려했다. 학교다운 학교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당시 교감선생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런 맛에 고생을 하는 거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자유학기 운영이 어려웠다. 예술활동반은 학급수보다 2개 반이 더 많은 8개 반으로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체육활동은 장소의 협소함을 고려하여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편성했다.

예술활동	체육활동
우쿨렐레, 오카리나, 사물놀이, 창의미술, 현대무용, 공연댄스, 캘리그라피, 친환경업사이클링	발레, 배드민턴, 필라테스, 공연댄스, 뉴스포츠, 스포츠 댄스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창의력이 필수조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술활동은 '정서의 순화'뿐만 아니라 창의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30여명일 때에는 활동 위주의 예술수업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게 된다. '15명 이하' 학급편성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발표회를 한다면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 또한 수월하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었다.



예술활동 우쿨렐레



예술활동 사물놀이



체육활동 발레



체육활동 필라테스



예술활동 오카리나



창의미술

고사기간을 이용한 교과융합수업

자유학기제란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20학년도부터 전북 대부분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4회의 고사 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도 컸다. 그러나 이 기간은 편하게 학생들과 프로젝트 수업이나 교과융합수업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2회의 진로체험활동, 2회의 교과융합수업을 계획했다. 그중 선생님들과 긴 토의 끝에 계획된 교과융합수업 '코로나19'를 간단히 소개한다.

일일	차시	활동 내용	학습 자료
6.15(월)	1	'코로나19' 교과융합수업 오리엔테이션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영화의 배경 이해	학습지
	2~3	영화감상 '감기'	영화 동영상
6.16(화)	1	국어: 영화 속 갈등	학습지
	2	과학: 바이러스의 이해	학습지
	3	수학: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수 변화 그래프	학습지, 스마트폰
6.17(수)	1	사회: 코로나 시대와 우리 사회	스마트폰
	2	기술·가정: 코로나로 인한 소비생활의 변화	스마트폰
	3	영어: 코로나 예방수칙 영어로 chant 만들기	학습지, 스마트폰

수업 후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고, 반별로 학습의 성취도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융합수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우수한 보고서에 대해 학생수 20%에 달하는 학교장상을 시상하도록 하였다. 주제선택수업이나 교과융합수업의 학업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지 또는 보고서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때 학생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여기에 시상이 있으면 수업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된다. 이때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의 수준을 생각하면 백지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막막한 느낌을 주어 오히려 성취동기를 떨어뜨린다. 막연한 주제의 보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과 직접 체험한 활동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수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최초의 자유학기제는 1974년 아일랜드에서 시험의 압박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폭넓은 학습경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의 지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했고, 큰 학교에서는 수업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했다. 근래에 주변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자유학기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해마다 자유학기 담당교사가 교체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교사 자율권 확대, 학생들의 사고 확장,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공교육의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학기를 진행하면서 동료교사들의 높은 책임감과 창의적인 수업개발 등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수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유학기제는 교사들의 자존감과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아리활동 작은 탁자 만들기



작은 생태계 만들기



동아리활동 친환경업사이클링



진로체험 우리 고장 문화재 탐방: 무성서원, 김명관 고택, 피향정